

bus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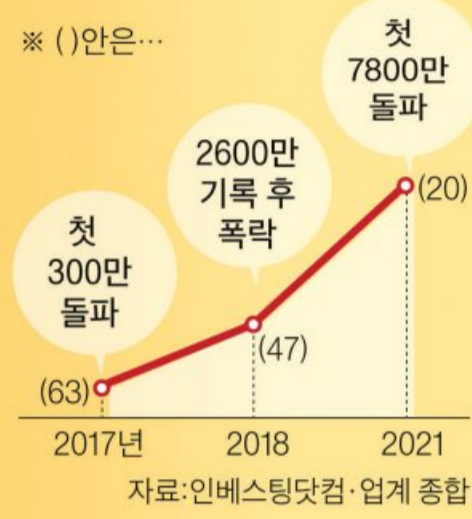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10~20%로 치솟아 거품 우려



최근 1개월 국내외 비트코인 시세



'김치 프리미엄'의 재현?



최근의 김치 프리미엄 원인은

- 급등한 비트코인 가격**
연초 대비 급등세에 국내 투자 열기 재점화
 - 반사이익**
연초 이후 주춤한 국내 증시 등 기존 투자처 대체
 - 중국 자본의 이동**
중국 정부 규제 리스크에 한국 거래소 주목
 - 세금 문제 선반영**
내년부터 연 250만원 이상 수익 내면 22% 과세
- 자료: 업계 종합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1억원가량을 투자한 조모(42)씨는 지난 한 주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조씨는 이 경험에 대해 "한마디로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의 황당함은 단순히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5일 1비트코인당 7877만원(업비트(암호화폐 거래소) 중가 기준)의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가, 불과 이를 만일 7일 장중 10% 넘게 빠지면서 7000만원대 밑으로 내려간 데서만 비롯된 건 아니었다. 조씨는 "같은 기간 해외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은 66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떨어져 사실상 '황보세였다'며 "한국에서만 유독 변동성이 심했던 것"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실제로 해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중가 기준 사상 최고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13일의 6965만원이다. 국내 사상 최고가보다 1000만원 가까이 낮은 데다, 시점부터 전혀 달랐다. 비트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등 다른 해외 거래소의 경우도 비슷했다. 한 달 사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에 거품이 유독 많이 끼어 있었다는 얘기다. 암호화폐 업계와 투자자 사이에선 이런 현상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란 용어로 설명한다. 예컨대 김치 프리미엄이 10%라면 해외 시세보다 국내에서 10% 비싸게 거래된다는 얘기다.

최근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당황하게 만든 급격한 시세 변동도 이 같은 김치 프리미엄에서 비롯됐다. 석모(35)씨는 "10%나 비싸게 사면 손해 보는 기분일 것 같지만 매수세에 한창 탄력이 붙은 채로 시장이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 속된 말로 눈이 돌아간다"며 "나만 관망하다가 큰 수익을 올릴 기회를 놓친다는 생각에 추매(추가 매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쌓인 김치 프리미엄은 지난 주 한때 20%에 달했다. 통상 업계에서 보는 안정권인 3~8%를 크게 넘어선 것이다. 그나마 역사적인 수준까지는 안 갔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 3000만원을 돌파했던 2017년 5월엔 김치 프리미엄이 무려 63%까지 치솟았다.

한국서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 안정권 3~8% 넘어 변동성 심해 천당과 지옥 오간 투자자 '황당' 가격 뛰자 '신증파' 들 대거 투자 박스피 영향 증시서 자금 이동 중국 자본도 규제 피해 유입돼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는 중에도 안정권을 이탈하지 않던 김치 프리미엄이 최근 한 달 동안 급격히 오른 배경은 뭘까. 크게 네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탄력이 붙은 글로벌 투자심리로 올 들어 한층 급등한 비트코인 가격에, 이전까지만 해도 긴가민가하던 '신증파'들이 대거 거래에 나섰다. 특히 지난달 초 미국의 1조9000억 달러(약 2125조원) 규모 경기 부양책 통과 소식이 이들을 자극했다. 1월만 해도 약 119만명이었던 업비트 앱

이용자 수는 2월 204만명, 지난달 320만명으로 급증했다. 연초 대비 3배다. 다른 거래소 빚썸의 신규 회원도 기준보다 1~3월 평균 78%씩 급증했다. 이 기간 국내 비트코인 시세는 3000만원대에서 7000만원대로 100% 이상 상승했다.

그 사이 국내 증시 등 다른 투자처가 지지부진했던 데 따른 반사이익도 작용했다. 연초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첫 3000포인트대를 넘어서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이후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 범람, '큰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역대 최장(51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 등으로 3200선을 넘지 못하고 석 달째 2900~3100대 박스권에 갇힌 게 됐다.

지난달 하루 평균 암호화폐 거래액은 18조7000억원가량으로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의 일평균 코스피 거래액(약 15조1300억원)보다 3조원 이상

많았다. 또 지난해 고공비행하면서 서학개미 투자 열풍을 일으켰던 미국 증시마저 주춤하다. 나스닥은 2월 중순에 사상 최고치를 찍고서 한 달 넘게 횡보 중이다.

이런 표면적인 원인 외에, 일각에선 두 가지를 더 제기한다. 하나는 이웃 나라 중국의 대규모 자본이 중국 정부의 고강도 규제 리스크를 피해 한국 거래소로 이동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심화했다는 시각이다. 익명을 원한 업계 관계자는 "2018년 초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면 폐지 등 규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내 자본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다는 분석이 많았고 실제 움직임도 잇따랐다"며 "비슷한 이치로 중국 자본이 현재 국내에 많이 유입된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내 거래소들은 외국인의 가입과 이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일부는 국내 미거주 외국인도 가입 후 여권 인증 절차만 거치면 거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민감한 세금 문제가 선반영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내년부터 국내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국민 모두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이를 제외한 금액에서 22%(지방세 2%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의 큰손들도 이를 염두에 두고 매매 가격을 조정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국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법인 투자가 최근 늘면서 가격 오름폭도 커지고 있다"며 "이들 법인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 10년간 이월 결산이 적용되지만, 개인 투자자는 암호화폐 투자 손실을 입어도 보호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김치 프리미엄이 심할수록 가격이 더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표류하기도 쉽다는 점이다. 해외 시장이 조금만 휘청거려도 이번처럼 훨씬 큰 하락 폭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 크립토크린트의 주기영 대표는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해 (김치 프리미엄이) 글로벌 시세엔 별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면서도 "이더리움 등 크고 작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까지 국내 시세만 너무 높아진 지금의 거품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자정 외엔 마땅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이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에 유통 중인 비트코인을 국내로 대량 들여와 공급량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김치 프리미엄 수준을 상시 확인하면서, 본인이 정한 적정선을 넘으면 빠르게 매도하는 식으로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7800만원대까지 오른 비트코인 가격이 서울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표시됐다.

알테오젠, 무상증자 후 주가 오르다 하락... 펀더멘털이 중요

김수현
글로벌모니터 대표

품, 제일바이오, 유유제약, 올리패스, 알테오젠, 화일약품, HLB생명과학... 최근 무상증자 공시를 한 기업들입니다. 사명만 바서는 어떤 업종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회사들도 있을 텐데요, 대한제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약 바이오 기업입니다. 왜 이 업종 기업들이 최근 들어 유독 무상증자를 많이 하는 걸까요?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기업이 신주를 발행해 주주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A사의 발행주식 수가 100주이고 주가가 1만원이라면 시가총액은 100만원입니다. 그런 A사가 신주를 100주 더 발행해 무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기로 합니다. 100% 무상증자를 하는 것인데, 발행주식수가 2배가 되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A사 주가를

실전 공시의 세계

바이오 기업 잇단 무상증자 주주 달래기 이벤트일 수도

5000원으로 조정합니다. 이 회사의 주주인 달봉이는 1만원짜리 주식 10주(1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무상 신주를 10주

더 받았습니. 주식 총수는 20주가 됐지만 주당 가치가 5000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보유주식의 총 가치(10만원)는 변함없습니다. 회사 시총도 100만원 그대로입니다. 무상증자 자체는 이렇게 기업가치나 주주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수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착시입니다. 무상증자 이후 주가가 싸 보이는 효과(1만원→5000원)로 주식 매수세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유통주식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주식 거래가 이전보다 활발해져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무상 발행하려면 회계상의 발행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대개 자본잉여금이 그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회사 자본구조에 여유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상증자 공시를 하면 대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무상증자의 목적을 '주주가치 제고' 또는 '주주환원정책'이

라고 기재해 공시합니다. 회사의 자본잉여금을 주주에게 돌려줘 주주가치를 높이려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주가 측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대 수혜 업종은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주가가 10배 이상 오른 곳이 드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입니다. 주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임상 결과가 좋지 않아 최근 주가가 급락한 기업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기업은 업종 흐름과 무관하게 계속 소외돼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주주 달래기, 주가 관리,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무상증자를 단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바이오기업 알테오젠은 지난해 고점 대비 최근 주가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달 10일 주주 1주당 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오름세를 타다가 다시 제자리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임상시험과 관련한 약재로 주가가 급락한 올리

패스 역시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민심을 달래기 위해 주주 1주당 0.5주 무상증자를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잠깐 반짝한 이후 침체하는 모습입니다.

근본적 펀더멘털 변화 없이 주가 관리나 부양을 위해 무상증자를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 무상증자는 때로 날개 역할을 하지만, 추락할 때는 속도를 잠시 늦추는 이벤트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수현 국제경제 분석 전문 매체 글로벌모니터 대표다. 중앙일보·이데일리 등에서 기자생활을 했다. 오랫동안 기업(산업)과 자본시장을 취재한 경험에 회계·공시 지식을 더해 재무제표 분석이나 기업경영을 다룬 저술·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1일3분1공식'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뻔 했다' '이것이 실전회계다' 등의 저서가 있다.